

안녕하세요, 저는 Ngoc 입니다. 저의 고향은 베트남입니다. 제가 살면
 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로 유명한 하노이는
 큰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을 옵니다. 다낭 시내 주위에 산, 강, 바다가 있어서
 많은 관광지가 많아요. 유명한 관광지 바나힐, Linh Ung 절, 호이안,
 푸탄 푸포, 미케 바다, 용다리, 한 시장, Son Tra 밤시장 등이 있습니다.
 호이안은 6개의 다리가 연결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 9시까지
 다리가 물과 불을 뽐냅니다. 용다리 옆에는 사랑다리와 용을 모신 봉어상이
 있습니다. 호이안은 등불과 코코넛 숲이 있는 고전적인 집들이 많은 전통 도시로
 유명합니다. 바나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높은 산맥, 그리고
 프랑스식 건물로 유명합니다. 다낭은 관광 명소 외에 도광라면, 쌀국수,
 빵 등이 맛있고 저렴한 특산물 요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온 레티취엔장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바라는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업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은행, 병원 같은 영어로 안내나 통역 서비스도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 요청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혼자 있더라도 조금 더 편리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국의 일자리가 더 만들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취업을 지원 하는 정책은 많지만, 취업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어떤 집주인이나 직장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뿐만 아니라

가족 소개하기

우리 가족은 네명입니다. 저, 남편, 아들 그리고 딸입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시아버지하고 가가이 살기 위해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브라질은 한국에서 아주 멀리 있어서 비행기로 거의 30시간이나
걸려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많이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언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문화도 배우기 위해서
외국 학교 보단 일반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사랑으로 환영받았고, 친구들이 매일 도와주며 함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받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는 한국을
매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서,
우리 가족이 받은 친절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한국 생활 이야기

저는 마리아입니다. 3년 전에 페루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첫 해는 우리 나라 페루와 너무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인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쉽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 생활이 어떨지, 한국 사회가 어떨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약간 적응을 좀 더 잘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고, 한국어 수업 활동을 하며, 한국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적응하는 것은 어렵고, 항상 마음이 서로 갈라져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살고 싶은 마음과,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국 하고 남편과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노력 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결혼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처음 보다는 더 많이 이해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씁니다.

이제 한국 문화 와 언어에 대해 더 많이 이해 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지금 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저는 공원을 좋아합니다.

공원은 집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걷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갑니다.

가족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강아지와 산책합니다.

강아지가 뛰고 놀입니다. 봄에는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나무가 시원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여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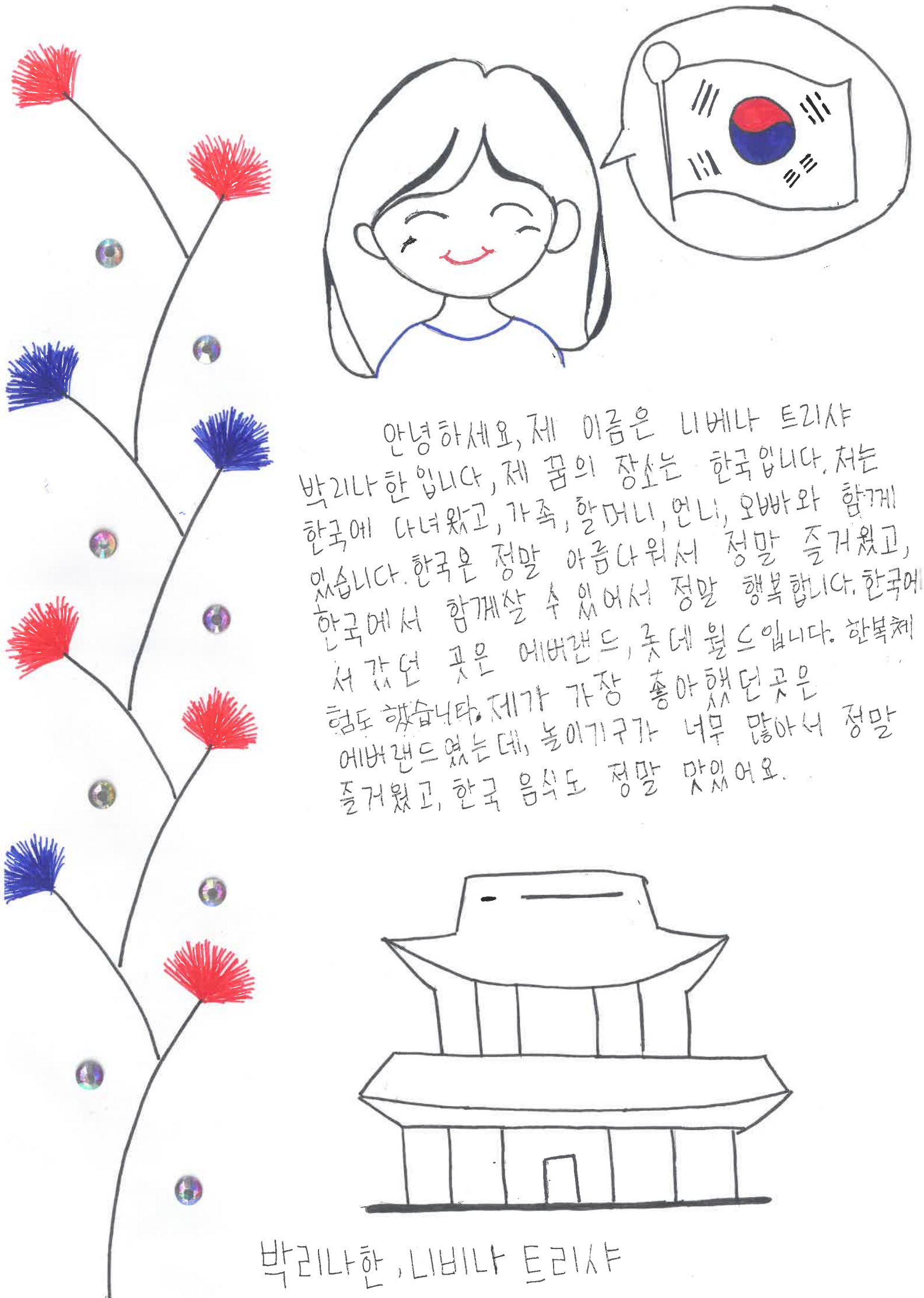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입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공원은 크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알리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비나 트리샤
박리나한입니다, 제 꿈의 장소는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고, 가족, 할머니, 언니, 오빠와 함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서 정말 즐거웠고,
한국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에
서 갔던 곳은 에버랜드, 롯데월드입니다. 한복체
험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에버랜드였는데,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즐거웠고,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박리나한, 니비나 트리샤



행복의 날개

안녕하세요! 저는 레티황완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년 3개월을 살면서 제일 좋은 추억이 남는 곳은 바로 제 친동생 집이에요.

그집은 가족의 따듯함이 있고, 한살 된 귀엽고 순한 마기도있어서 모두에게 즐거움을 줘요.

시간이 되면 남편이랑 6살아들을 데리고 동생 집으로 가요.

같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먹은 후에는 다같이 공원에 가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우리는 편하게 쉬면서 웃음 소리가 가득해요.

저게 동생 집은 가족과 함께 할수있는 곳일 뿐만아니라 낯선 곳에서도 다 뜻하고 편안하며 행복을 느낄수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쑤우영 입니다, 중국에서 왔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언니는 눈이 매우 예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니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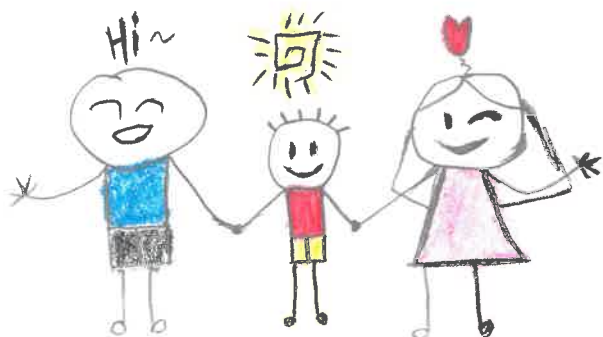
내가 실망했을 때, 언니는 나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차가 필요할 때, 언니가 차를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조금 힘들지만 언니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는 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언젠가는 언니의 모든 사랑과 노력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니 고마워요. 사랑해 언니!



한국 생활 이야기

우리 가족은 네명입니다. 저, 남편, 아들 그리고 딸입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시아버지 가까이 살기 위해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하루는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브라질에서 매일 답습니다. 한국에서 계절이 뚜렷해서 여름은 더더욱하고, 봄은 아름답고, 겨울은 눈이 내리고, 가을은 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을 먹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저녁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는 오후에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센터 수업 덕분에 이제 혼자서도 조금 할 수 있어요. 미용실 가고, 친구 사귀고, 시장도 가고..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하루가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주 친절하시고, 책에 있는 것 말고도 한국 생활, 사회 규칙, 궁금한 것도 다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우리가 받은 친절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나





- 저는 태국 사람 입니다.
- 저는 한국에 산 지 9년이 되었습니다.
-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 아이들이 자라면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저는 아이들을 직접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 저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도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가끔은 아이들 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아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전보다 훨씬 편하고 수월해졌습니다.



나파야 펫밴 ♥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몰라서

바닥이 힘들었습니다. 🍅

특히 처음 바트에 갔을 때 분건을 씻지 못하고

직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나중에 한국어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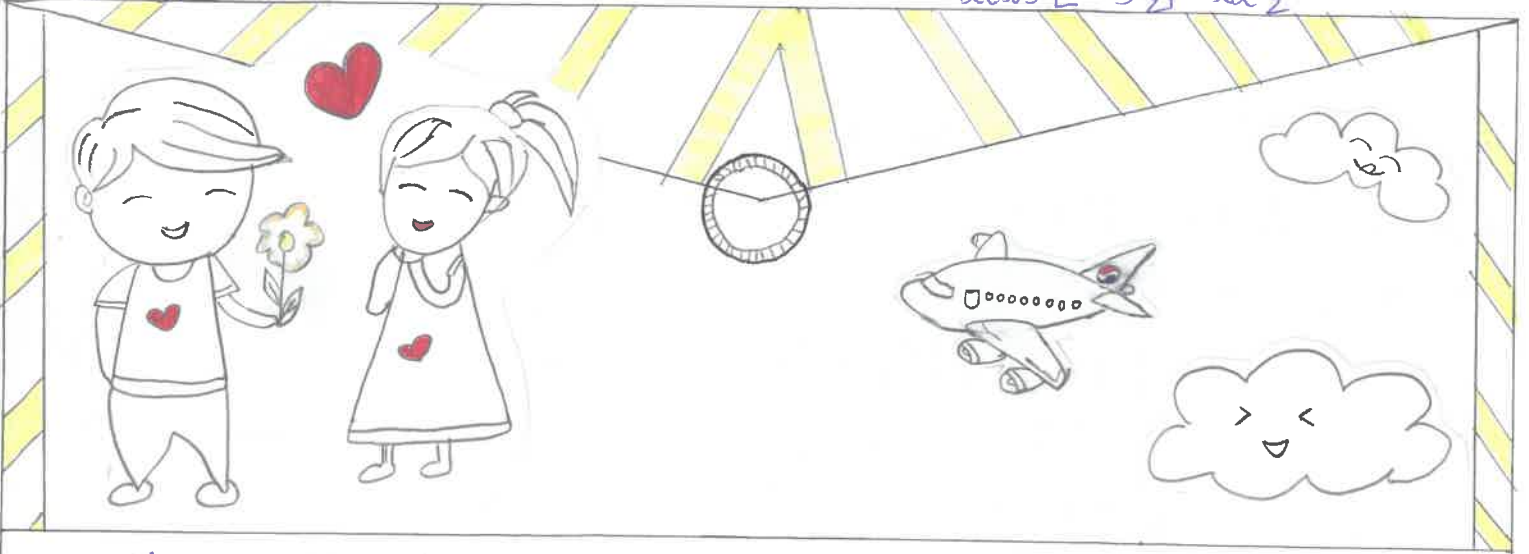
조금씩 나아졌고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리타 —



Ly' Ghi Era



2024년 4월 남편을 만나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0일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있어서 밀착 밀어났습니다. 9일 저녁에 시험이 떨어질까 봐 긴장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저의 방법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밖에서 산책도하고 꽃놀이도 하고, 저에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침 9시 10분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7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갔더니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다른사람들이 저보다 밀착 왔습니다. 한명씩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약 10분 후에 반 친구들도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험포와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8시 30분에 시험장으로 이동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등쪽 번호를 찾았습니다. 의자는 등쪽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합니다. 저는 등쪽 번호를 찾아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너무 떨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불합격하면 재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어2' 필수 없을 것입니다.

교실에 있을 때 1초가 지날수록 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분 기다린 게 4시간 같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하였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입니다.

8시 50분에 우리는 주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시험지와 펜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세미 아프가니스탄 사람입니다.

한국 생활은 고향이랑 많이 달라요.

* 저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해요.

보통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일이나 이 세터에 가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집에 가서 공부하거나

한국어를 연습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지만 친절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가족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어요.

하세미

아프가니스탄

(배가 어려움 을 극복한 경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려운 시기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
지만, 계획적 인 노력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문제는 끝이 아니라 성장

의 기회라면, 성공은 긍정은 긍정적

인 자세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

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마니
타에보

이름 : 쩐 티 벡 응 옥 (TRINH THI BICH NGOC)

학년 / 반 : 2025 / 초급 1-B

장소 : 계산 새마을금고 본점

과목 : 한국어

장사 : 유미현

내가 좋아하는 사람 - 어머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와 존경이 가득 차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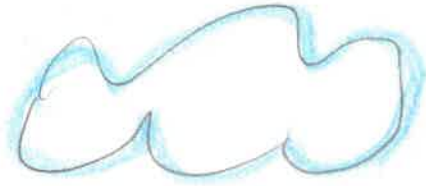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셔도 힘든 내색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밥상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제가 고민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짧지만 깊은 말씀으로 제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어머니의 한마디는 수많은 책보다도, 수많은 조언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로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가장 소중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가던 기억, 함께 노래를 하던 기억, 또 제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 주셨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들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제 마음을 채워 줍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름방학에 고향과 수영

지난 주에 나는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은 바다 근처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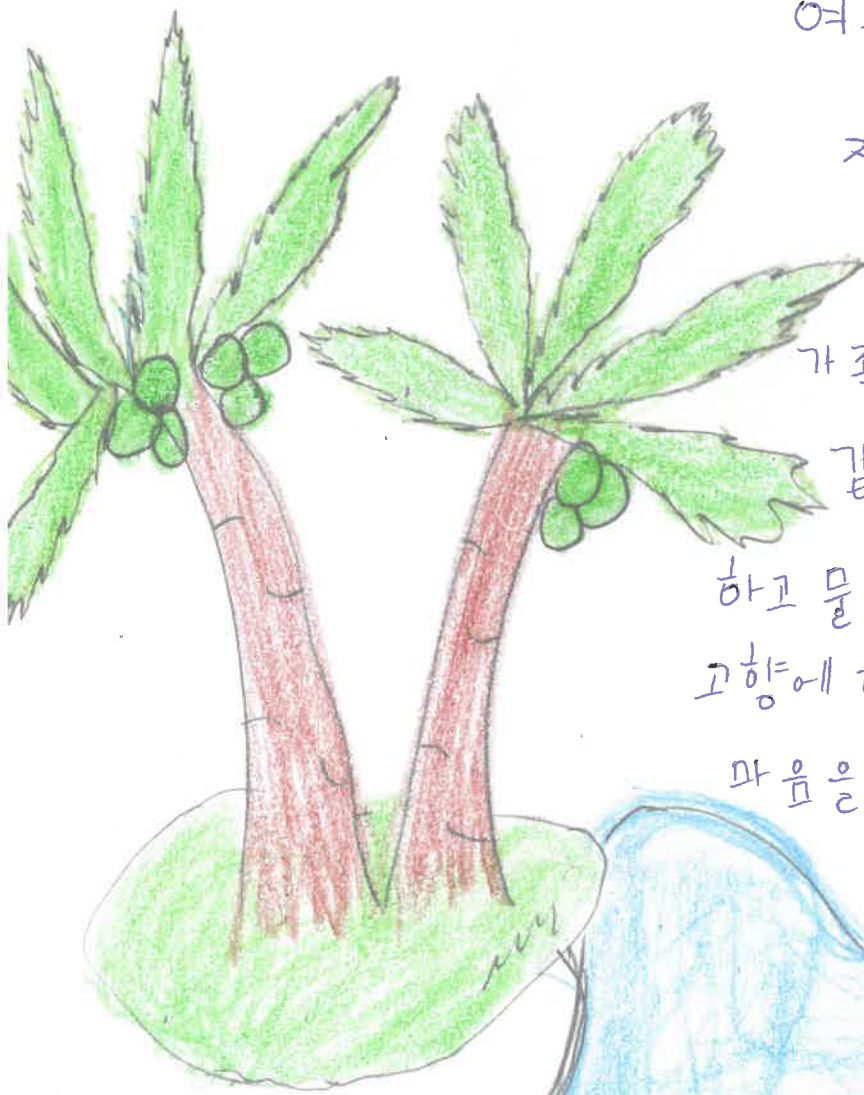
가족들과 함께 자주 갑니다. 부모님과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바다 바람

하고 물은 시원했습니다. 여름마다

고향에 항상 갑니다. 맑은 공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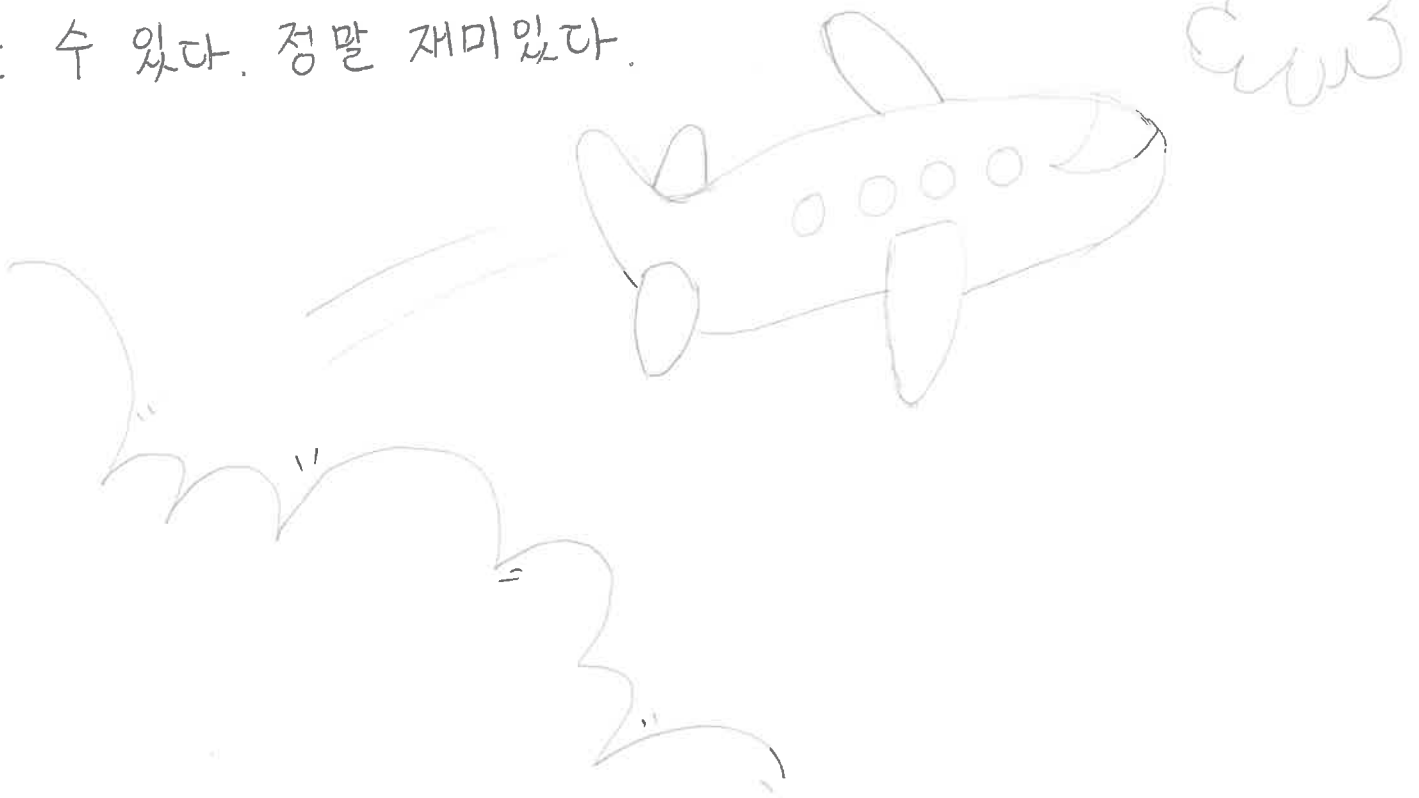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국립항공박물관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과 같이 비행기를 보러 거기에 자주
 간다. 우리 아들이 비행기에 관심이 많다. 또 나는 오랜
 동안 승무원이었다. 우리 다 비행기를 좋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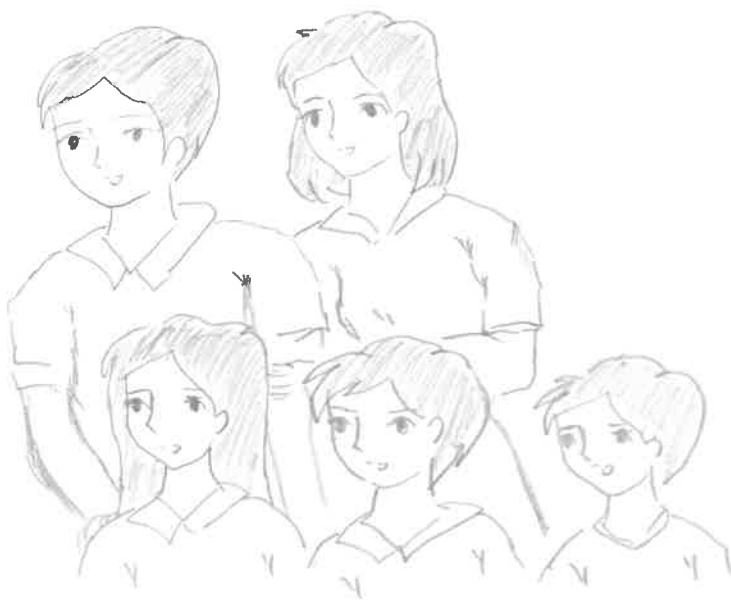
국립항공박물관은 김포공항 근처에 있다. 지하 밀층과
 지상에 편하게 주차 할 수 있다. 밀층에서는 모두 한국
 항공 회사의 유니폼과 가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국
 항공사의 비행기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이층에서
 항공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기내 훈련 체험도 할 수 있다.
 삼층에서는 어린이 비행 체험이 있고 항공도서관이 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즐겁게 놀았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
 는 곳은 바로 사층 전망대이다. 전망대에서는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상태를 다
 볼 수 있다. 정말 재미있다.



“제 자신에 대해”

제 이름은 로즈마리입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제 딸은 2학년 학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제 셋째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아도보는 필리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달콤한 망고보다 그린 망고를 좋아합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심할 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끔 음악을 듣습니다. 슬픈 영화를 싫어합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가족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미안 이에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저는 38살이고 한국에 온지 5년 됐어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남편, 딸, 아들 이랑 살고 있어요.

처음에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음식도 맛이 있었어요, 친구도 있었어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고향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한국어도 많이 배웠어요 반 친구도 선생님도

다 좋아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친절해요

이제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편해요

저는 보통 아침에 6시 30분에 일어나요. 남편하고 애들한테 아침식사
준비해 주고 애들고 어린이집 갈 준비 잡게 주고 보내요 애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저는 집안일 해요. 집안일 하고 나서 씻고 아침을 먹고 저는 한국어
공부하러 가요.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애들고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라서 자주 질문을 해도 항상 웃으면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

2025. 9. 23

정미안 입니다.

(초2)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세수를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 해서 간단히 요리를
해서 먹어요. 식사한 다음에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집을 정리 한후 영화나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 하고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이나 백화점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해요.

가끔은 한강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 같이 가서 운동을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저녁식사를 해요. 저는 한국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떡볶이와 불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식사 후에는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일 계획을 이야기 하고
서로의 하루를 얘기하고 한국어도 예습복습해요.
그리고 늦은밤 편안히 잠들며 하루를 마무리 해요.

나의 하루 / 한국 생활 이야기

한국에서 살아온 9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면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매우 혼잡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조용히 각자의 시간이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특히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항상 동료들과 회사 식당에서 먹는데 이제는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주 혼자 공원을 거닐거나 운동을 합니다. 한국의 공원도 특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을 친구를 만나다.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떨거나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매일 매일 항상 짧게만 느껴 집니다.

초급₂ LiULiyan.

(초2)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제 하루 일과에 대해 쓰겠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보통
1시간쯤 운동~~을~~ 하고 오후 1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시어머니 집에 갑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걸려서 자주 갑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요리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남편과
집에 돌아옵니다. 다른 날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거나 사우나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자주 만납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해당 국가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결혼하러 이주인들, 일하러 온 노동자들, 공부하러 온 학생들 등... 여러 목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48만 9천 명에 도달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 생각도 다르고 바라는 점도 다르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외국인들이 한국의 생활에 적응을 잘해야 사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다. 외국인한테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해야 서로 이해가 잘 되고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센터, 가족 센터, 복지관 등 외와 같은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다양한 수업 교육도 필요하다.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수업,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기초 '생활 교육',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이 꼭 있어야 한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주로 일을 하리만 한국 말도 의무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외국인들은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차별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한다. 편견이나 차별 없이 하려면 학교에서 학생한테는 다문화 이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세계 문화 축제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더 많아야 하고 시민 생활 속에서 다문화 행사, 다문화 체험을 자주 열어 주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대중 매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과 광고가 더 많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외국인은 나랑 먼 거리, 나랑 상관없다는 생각을 줄일 수 있다. 서로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편견을 없애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하면 좋겠다. 이주인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하나가 경제 활동이다. 취업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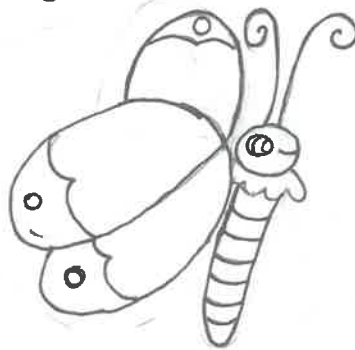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빛잡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산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서 교통, 의료, 학교, 인터넷, 등 생활 환경도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려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차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발음과 쓰기 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센터에 도움이 되는 모두 분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안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한국인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Vam5
리티빛잡

한국 생활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 온 오소동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는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살 때는 적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 소통의 문제가였습니다.
대행이도 시간이 최고의 약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는 매일 편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만듭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매주~~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 활동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매일 저녁 집 앞
호수 공원에서 1시간쯤 산책합니다.
지금 한국 생활은 보람 차고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소동

2025.09.23. (초2)



가족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 제 이름은 정미안이에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저는 38살이고. 한국에 온지 5년 됐어요. 저는 인천 여양구에서 남편 딸. 아들
이랑 살고있어요. 처음에 공보가 재미있어요. 음식도 맛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한국어도 많이 배웠어요.

반 친구도 산생님도 다 좋아요. 한국어 공보가 재미있어요. 한국사람들이 아주

친절해요. 이제 한국말을 조금 할 수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편해요.

저는 보통 아침에 6시 30분에 일어나요 남편하고 애들한테 아침식사 준비해

주고 애들과 이집집갈 준비 챙겨주고 보내요. 애들이 이집집 보내고 나서 저는 집안일해요

집안일하고 나서 씻고 아침을 먹고 한국어를 공부하러가요.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애들이 데리러가고 집에와서 저녁을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문라서 자주 지문을해도 항상 웃으면서 가르쳐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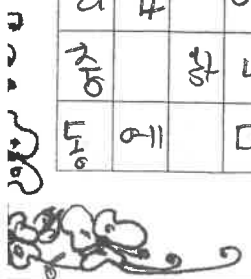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2025.9.24

정미안



내가	바라는	미래:	우리	가족의	방은	거년	계	
현								
안녕하세요. 저는	송에이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100
니다.	우리	가족계획은	우리	아이들과	부부	사이에		
꼭	필요	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	
고	가족	구성원과	타인	을	배려와	원절로	대하며,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행동과	의무에	대한		200
책임입니다.	서로	완벽하진	않지만,	힘든	순간을			
함께	헤쳐나가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노력이				
행복과	유대감을	만드는	책임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가족의	가치가	우리	가족	행동과	결절을		300
이끄는	도덕적	이고	유리적인	원칙	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	이것은	제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가치이며,		
이제	제가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가치	입니다.	가장	일반적	이고	자연스러운		400
표현	입니다.	오	기	는	이것을	함께	채워	
나	우리	의	발전	을	촉	하	하	
고	시간	이	흐름	에	따	라		
우리	의	길	을	바	르	게	찾	
아	가	갈	것	입니다.				
우	리	가	아	이	들	에	게	
가	르	는	몇	가	지	일	반	
적	인	가						500
가	치	는	다	음	과	가	습	
니	다.	정	직	은	신	뢰	를	
생	고	건	강	한	사	회	기	
술	을							
개	발	하	며,	자	신	감	을	
가	지	고	자	신	을	표	현	
하	도	로	도					
습	니	다.	두	번	제	는	존	
중	요	입니다.	각	가	족	구	성	
원	과							600
타	인	특	이	어	른	들	을	
존	중	하	는	것	입니다.	이	것	
은	우							
리	가	아	이	들	에	게	중	
수	있	는	가	장	가	치	있	
는	고	훈						
중	화	나	입	니	다.	세	번	
제	책	임	감	습	니	다.	자	
신	의	행						
동	에	대	해	책	임	지	는	
것	입니다.	아	이	들	이	성	장	
하	면							700



서 실 수 는 피 할 수 업 지 만 법 을 배 우 면 두 려
 옴 업 이 관 절 은 헤 쳐 나 가 는 법 도 배 우 게 되 기
 업 니 다.
 앞 으 로 우 리 가 족 의 추 구 할 목 표 와 발 전 계 획
 니 다. 첫 번 째 년 도 는 정 기 적 인 가 족 불 동 을 계 획
 하 고 실 행 합 니 다 (식 사, 취 침, 화 동 등 등) 식 사 는 단 순
 히 먹 는 행 위 를 넘 어, 가 족 과 의 연 결 과 연 련 소 통
 을 위 한 것 업 니 다. 취 침 일 과 는 아 이 들 이 더 쉽 게
 감 들 고 다 음 날 아 침 에 활 기 차 게 일 어 나 도 록 도 움
 니 다. 일 관 문 일 과 는 또 한 평 생 지 속 모 건 강 한
 수 면 쇼 관 을 형 성 하 는 데 도 움 이 됩 니 다. 함 께 하
 는 화 동 이 사 재 입, 그 리 고 요 리 는 오 래 가 는 추 역 과
 전 통 을 만 들 고 아 이 들 에 게 즐 거 움 을 선사 합 니 다.
 이 는 부 모 로 서 의 우 리 를 행 복 하 게 합 니 다. 그 리 고
 가 족 저 축 계 획 을 시 작 합 니 다. 일 별 예 산 을 세 워
 스트 레 스 를 줄 이 고 우 리 의 미 래 를 위 해 더 많 이
 저 축 합 니 다. 계 좌 를 개 설 하 고 매 달 일 정 금 액 을
 저 축 하 는 것 은 아 이 들 의 고 육 적 미 래 를 보 장 하 기
 위 한 것 입 니 다. 마 지 막 으 로 가 족 휴 가 를 계 획 합 니
 다. 매 년 여 름 방 학 마 다 우 리 는 해 별 이 나 계 목 으 로
 가 족 휴 가 를 갈 것 입 니 다. 두 번 째 년 도 는 건 강
 하 고 행 복 한 삶 을 추 구 합 니 다. 가 족 식 사 를 준 비
 하 고 더 건 강 하 게 먹 고 매 주 새 로 운 건 강 레 시
 피 를 하 나 색 시 도 합 니 다. 그 리 고 집 에 서 독 서 와
 학 습 을 장 려 합 니 다. 마 지 막 으 로 새 로 운 취 미 를 합
 게 갖 아 봅 니 다. 매 주 저 녁 식 사 후 에 가 족 산 행
 을 시 작 하 고, 주 말 에 는 함 께 배 드 민 턴 과 같 은 운
 동 을 합 니 나 세 번 째 년 도 는, 필 리 핀 여 행 을 계

1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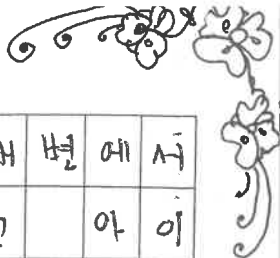
300

400

500

600

700



회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함께 해변에서
수영하고 현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들이 필리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도
록 지원하며, 아이들이 필리핀 문화와 풍습을 배
울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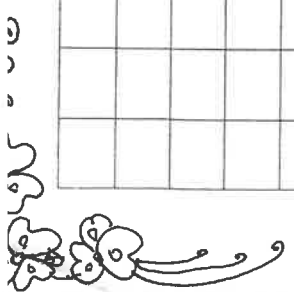
300

400

500

600

700



없는

있을 수

여 행



저는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우리 가족이 홍콩으로 여행을 간 것입니다.
홍콩 빅토리아하의 야경을 별빛과 불빛이 반짝 반짝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홍콩 해양

공원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롤러 코스터가 있고,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있으며, 거대한 해저 성이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돌고래 공연

인데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 냅니다. 우리 가족은 홍콩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만 홍콩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갑자기 비가

이번 홍콩 여행은 시간이 그리 많았지만 모두가 갑자기 맑다가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들은 내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행할 시간이

있다면 홍콩을 꼭 한번 꼭합니다.

꼭 가보세요!



☆	제	가	중	아	하	는	장	소	는	바	다	입	15	
니	다												30	
안	녕	하	세	요	!	저	는	디	우	갸	입	니	다	45
베	트	남	사	람	입	니	다	.	제	남	편	은		60
한	국	사	람	입	니	다	.	지	금	저	는	한		75
국	에	서	살	고	있	습	니	다	.	한	국	에	서	90
외	생	활	은	많	이	외	롭	지	만	가	끔			105
은	조	금	재	미	있	습	니	다	.	저	는	한		120
국	음	식	을	잘	못	하	지	만	베	트				145
남	음	식	은	아	주	잘	만	들	수					160
있	습	니	다	.	저	는	파	와	마	늘	이	많		175
이	들	어	간	음	식	을	싫	어	합	니	다	.		190
그	것	들	은	몸	에	서	불	편	한	냄	새	를		215
만	들	기	때	문	입	니	다	.	하	지	만	야	채	230
는	아	주	중	아	합	니	다	.						245

가족의 의미

저희 남편과 저는 매일 일찍(기상)하여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점심과 저녁 모두 회사 식당에서 먹습니다, 각자의 일상 때문에
바쁘지만, 있음에도 마음은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는 대로는 밖에서 영화를 보며 쉬기도 하고 주말에도
가까운이나 전시회를 가별게 돌아다니면 나들이를 즐깁니다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서 짐을 싸고 길을 찾아 여행하며, 맛있
는 음식을 발견할 때의 그 작은 설렘과 기쁨, 그것들이 모여 우
리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토픽 Liuliya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 입니다. 베트남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 4년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이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칠 때 가족은 항상 응원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잘 못했을 때 도 다뜻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족은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행을 갈 때 진짜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삶에 대한 사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제 삶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팜티 투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유진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신지 61년이되고요.

우리 가족은 80명이 있어요. 남편이랑 아들을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6살이 됐는데 말을 많이 못해가고 저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언어 치료가 많이 받았는데 안 좋아지고 저는

자극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집안일이 거의 혼자 다알았어하고. 제게 속 일을 하니까

그런데 주말에 우리 같이 놀러가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가족의미는 저생각하면 엄마와 아빠는 자녀한테 행복해 주고

서로 이해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풀어요.

가족한테 매일 매일 행복하게 지내요. 가족이 사이 좋으면 사회에

도 좋아요. 그래서 가족의미가 잘 이해하면 나라한테도 도움이 있

을 것 같아요.



김유진

☆				직	업	개	인	과	사	회	에	대	한	중	요	15			
인	간	창	조	의	시	작	과	땅	이	삼	의	터	전	이	된	순	간	부	40
그	럼	이	당	을	일	구	이	찾	고	그	것	이	삼	의	목	표	가	45	
도	어	습	니	다	.	따	라	서	인	간	은	다	양	한	일	과		60	
습	관	으	로	자	신	의	삶	을	형	성	하	고	자	노	력		75		
해		왔	습	니	디												90		
각	일	에	대	한	계	획	을	세	우	고	.	다	양	한	일	을	105		
늘	리	고	.	일	에	서	성	취	를	이	루	기	위	해	끝	임	120		
없	이	노	력	해	왔	습	니	다	.								145		
구	대	에	는	심	장	이	생	명	으	로	뛰	는	순	간	.		160		
인	간	은	자	신	의	일	에	더	욱	능	속	해					175		
적	습	니	다	.	일	에	서	의	양	심	은	끝	임	없	는		190		
삼	의	사	장	입	니	디											215		
																	230		
																	245		

☆	사	감	하	는		서	우											15
	저	는		제	때		서	우	를		너	무		사	감			30
	하	나	다			서	우	는		태		어	난	지		이	개	45
	무		돼	는	니	다		서	우	는		너	무		기	며		60
고		예	뻔	바	다		그	리	고		서	우	는		요			75
	저	에		이	아	게	도		많	이	하	고		경	을	마		90
도		시	작	했	는	니	다		서	우	는		이	유	식			105
도		작	만	는	니	다		하	지	만		서	우	는				120
	밤	에		장	을		장	만	자	는	니	다		나	에			145
만		장	을		자	자	니	다		그	대	서		요	는			160
은		나	이		아	니	라		밤	에		장	을		자			175
은		사	관	을		나	에	하		려	고	노	려	하				190
니	다		저	는		서	우	에	게		종	은		영	아			215
가		되	고		지	해		종	고		작	한	아	미	가			230
되		수		이	는		게	는		공	부		하	니	다			245

이름 : 윤원태 홍민우

☼	아	오	수		서	우	가		어	태		자	강	이		15
도		저	기	가		도	니	다								30
																45
																60
																75
																90
																105
																120
																145
																160
																175
																190
																215
																230
																245

과정: 한국어 초급 1-A

이름: 코스타 실바 브록 이리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합니다.



대구의 꽃보라 동산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편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음식을 만들면 남편도 좋아합니다.



비빔밥

잡채와 호박전

파스텔

파스타

우리는 항상 함께 있고, 주말에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식당과 카페에도 갑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공원들을 산책하고 함께 운동도 합니다.
우리는 시마롱차를(브라질 차) 마십니다.



집앞에 계양체육공원

공원에서 시마롱

우리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남편과 함께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남편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				-	조	은	시	-									15
	나	:	남	편	으		나	의	외	지							30
	해	살	저	럼		빛	나	는	마	음							45
	함	께		것	느	이	길		위	어							60
	가	장		조	은		사	랑	은	-	바	라		당	시		75
																	90
																	105
																	120
																	145
																	160
																	175
																	190
																	215
																	230
																	245

- 1 -

☆	저	는		라	오	스		사	람	입	니	다		저	는	15
한	국		사	람	과		결	혼	했	는	데		그		사	30
람	이		제		남	편	입	니	다	.	그	래	서		저	45
는		지	금		한	국	에		있	습	니	다	.	결	혼	60
하	기		전	에	도		남	편	은		성	격	이		조	75
고		말	도		천	자	했	는	데	,	결	혼		후	에	90
도		저	를		더		사	라	하	게		되	있	습	니	105
다	.	한	국	에		도	착	했	을	때		남	편	이		120
저	를		쇼	핑	북	에		데	려	가	서		못	을		145
사	주	었	습	니	다		제		남	편	은		제	가		160
보	기	에		가	장		착	하		사	람	입	니	다	.	175
제	가		한	국	에		문	지		오	래	되	지		않	190
아		한	국	어	를		자		못	하	지	만		어	디	215
를		가	든		남	편	이		하	상		면	에	서		230
도	와	주	었	습	니	다		여	름	에	는		을	와	리	245

☆ 제	한	국	이	몸	은	단	면	의	밑	니	다	15	
저	는	남	편	과	함	께	한	국	에	서	살	30	
고	있	습	니	다.	저	는	여	름	에	한	국	45	
에	와	서	살	게	되	었	습	니	다	한	국	60	
의	여	름	은	넉	지	만	제	게	는	너	무	75	
넉	지	만	습	니	다.	만	은	사	람	들	이	90	
바	다	에	가	게	나	살	에	모	르	게	나	105	
여	름	국	제	에	참	가	함	니	다.	여	름	120	
풍	경	은	활	게	차	고	하	는	은	파	랑	고	145
나	우	는	푸	름	니	다.	사	람	들	은	가	벼	160
은	못	을	밧	고	가	족	이	나	친	구	와	175	
함	께	는	여	름	을	즐	겁	니	다.	미		190	
두	활	발	하	고	즐	겁	게	야	외	활	동	215	
을	중	아	함	니	다.	베	트	남	의	여	름	230	
은	더	넉	고	비	가	자	주	옴	니	다.		245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 트 입니다.	15
나라. 저는 한국에 온 지 3 개	30
월 됐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	45
저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60
식사 후에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75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 근처	90
에 공원이 있어서 자주 합니다.	105
공원이 큰데 학마를 공원입니다.	120
아침에는 사람이 많고 햇빛이	145
강합니다. 햇빛이 강하지만 저는	160
강한 햇볕도 좋습니다. 산책할	175
때 저는 음악을 듣고 모디오	190
이야기도 듣습니다. 가끔 친구에	215
게 전화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230
베트남에도 공원이 많습니다. 하	245

※	제	가		중	아	하	는		장	소	는		서	오	이	야	15
나	다	.															30
	저	는		서	오	에		남	편	과		강	미		강	사	45
수	나	다	.	서	오	에	는		남	산	타	위	하	고			60
한	강	마		있	습	나	다	.	남	산	타	위	는		위		75
명	하	고		예	벤		곳	입	나	다	.	남	산	타	위		90
에	서	는		서	오	의		전	경	을		국	경	하			105
수		있	습	나	다	.	한	강	에	서		산	적	하	고		120
자	전	거	는		탈		사	도		이	사	수	나	다	.	저	145
는		한	강	에		가	서		사	진	도		적	고			160
커	피	도		마	사	수	나	다	.	방	에		한	강	은		175
정	말		아	중	다		위	수	나	다	.						190
	저	는		서	오	에		간		우	에		기	보	미		215
정	말		중	거	위	적	수	나	다	.	그	래	서		시		230
강	미		이	사	은	말		서	오	에		단		가	고	시	245

☆	제	가	가	장	중	아	하	는	사	람	남	15	
편	에	대	해	이	야	기	하	고	싶	습	시	다	30
그	는	무	슨	일	이	있	어	도	항	상	제	45	
원	에	있	습	니	다							60	
우	리	1	집	은	정	말	행	복	합	니	다	75	
저	는	한	국	음	식	을	만	드	는	것		90	
을		중	아	합	니	다						105	
남	편	이	행	복	합	니	다	그	래	서	브	120	
라	질	음	식	을	만	들	면	남	편	도	중	145	
아	합	니	다									160	
우	리	는	항	상	함	께	있	고	,	주	말	175	
에	는	집	에	서	영	화	를	보	고	,	식	당	190
과		카	페	에	도	가	나	다				215	
아	름	다	운	한	국	의	공	원	들	을	산	230	
책	하	고	함	께	운	동	도	합	니	다		245	

* 안	녕	하	세	요.	저	는	사	크	노	자	입	니	다	15
제	가		좋	아	하	는	사	람	에		대	해	서	30
오늘		말	씀	드	리	려	고		합	니	다		내	45
사	랑	하	는		사	람	은		제	게	어	머	니	60
입	니	다.		우	리		아	주		착	하	고	영	75
영	명	한												90
여	자	입	니	다.		요	리	하	는		법	을		105
가	르	쳐	주		어	머	니		제	게	미	래	어	120
대	해		걱	정	입	니	다.		우	리	부	부	의	145
모	든		일	에	서		저	를		응	원	해		160
주	시	고		도	와	주	십	니	다		나	의	양	175
초														190
나	의		두		번	째		사	랑	하	는		어	205
머	니													220
입	니	다.		가	족	의		행	복	과		안	녕	235
은														250
우	리		부	모	님	께		달	려		있	어	요.	265
우	리		부	모	님	은		사	랑	과		보		280
살														295
평	이	로		우	리	의		기	초	를		다	정	310
기														325

☆	내	가		좋	아	하	는		사	람		장	소			15			
제	가			중	아	하	는		사	람	과		장	소	는	30			
가	족	과		바	다	입	니	다								45			
사	랑	하	는		가	족	들	과		함	께		바	다	에	60			
가	서			바	다	를	보	고		싶	습	니	다			75			
라	오	스	는		바	다	가		어	습	니	다		그	래	90			
서		아	빠	와		엄	마		언	니		동	생	들	과	105			
너	은			한	국	의		바	다	에	서		수	영	을	120			
하	고			맛	있	는		밥	도		먹	고		싶	습	니	145		
다																160			
제	가			중	아	하	는		가	족	과		함	께		175			
사	진	도		찍	고											190			
그	리	고			가	족	들	과					맛	있	는		한	국	215
음	식	도																	230
제	가			중	아	하	는												245

11월 25일

		내	가	바	라	늘		미	래					되					
		한	국	에		온	지	발	새		10	년	이		다		했	습	니
그		10	년	동	안		걸	흔	해	서		아	이		들		놓	기	까
시	간	이		발	리		지	나	갔	습	니	다		아	이	가		없	을
상		내	가		더		놀	름	해	질		거	라	고		생	각	하	고
을		내	무	고		싶	었	습	니	다		하	지	만		아	이	가	생
의		문	제		건	강		또	는		학	습		생	활	만		생	각
다		나	의		장	래		희	망	도		대	가		어	떤		일	에
나		무	엇	을		안	고		싶	은	지		고	민	하	는		것	입
앞	으	로		10	년		동	안		저	는		다	양	한		기	술	을
바	가		되	어		아	이	들	에	게		의	지	할		수		있	기
다		10	년		동	안		말	심	히		공	부	활		기	회	을	잡

200

00

00

내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공항의 비행기에서 나오는 식사카트를 정리하는 곳입니다.

이직은 순수한 육체노동이라서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큰 어려움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8년이 되었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100% 한국어 환경에서 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60 대였고 말을 좀 빠르게 해서 배움을 잘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또 사투리도 많이 쓰셨고 업무에서 쓰는 용어는 대부분 영어왜래어라서 저에게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달 동안 꾸준히 버티며 노력했습니다.

작 모를 때는 관찰하거나 직접 여쭙어 보면서 하나씩 배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은 점점 일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급 1번 여레이



저는 밖에 자주 나가지 않고 특별한 추억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추석 때 큰집에
내려갔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큰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후 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등산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묘지 문화는 베트남과 달라서 저는 매우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
도토리도 주웠습니다.

그날 밤은 큰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경상남도
서고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 받았습니다.
서고모님 댁에서는 추석마다 고구마를 수확한다고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웠지만 고구마를 캐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올 해는 고구마가 너무 작아서 먹을 수도 없고 수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자두와 고추는 풍년이었습니

저는 차를 오래 타면 멀미가 심해서 먼 길 가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 추석은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추억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 란 아연 ~

한국 생활의 도전과 희망

제가 한국에 온 후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한국어 문제였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하다 보니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길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각 구마다
배움의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게다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포용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꼭 저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급 1반 : 리스.

KOREA

나의 하루

나는 아침 9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속을 편하게 해 줘요. 아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과를 깎아 줘요. 사과 먹은 도한 어린이집 가방 준비 하고, 아들의 세수와 양치 하고 옷을 입혀요. 9시 30분 쯤 차량이 오기 때문에 9시 25분 쯤 나가서 차량을 기다려요. 아들 태워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는다. 그 다음에 집 정리와 청소 하고 운동하러 헬스장 가요. 1,2 시간 운동 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 음식 준비 해요. 그 사이에 고향에 있는 엄마나 동생과 영상 통화를 해요. 오후 4시 20분에 오는 어린이집 차량 기다리기 때문에 미리 나가요.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기고 손을 씻겨요. 그 다음에 준비 한 음식을 먹고 같이 티비 보면서 놀아요. 저녁 먹는 후에 우리 나가서 놀이터에 1,2 시간 놀아요. 늦게 나가면 30분 만 놀고 들어와요. 집 들어와서 아들에게 요거트나 과일, 우유 먹이고 목 목을 시켜요. 그리고 잠자리에 재우면 나의 하루가 끝 납니다.

초급반 토야